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10. 28.(수) 07:00 ~ 22:00
- 상담건수: 516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1명)

-프로그램명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일시 : 2026. 10. 27.(화) 1TV (10:00-11:10)

단순히 모르는 링크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알려주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방송을 놓치면 손해라는 생각에 매일 강의를 듣듯 시청했는데, 이날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자세히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 진행자 제언(6명)

-프로그램명 : 「2026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KIA : 삼성 - 대구 -’

-방송일시 : 2026. 10. 27.(화) 2TV (18:15-22:00)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삼성의 좋은 플레이에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KIA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덜했다. KIA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편파적으로 느껴졌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공영방송에서는 어느 한 팀에 치우치지 않고 양 팀을 균형 있게 중계해 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2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516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246	48	-	-	222	516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231	179	14	-	-	92	516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67	449	-	516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411	2	21	82	516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일일드라마 「욕망의 덧」 - 결방 제언 【보 도】 ○ 「KBS 뉴스」 - 자막 제언 ○ 「KBS 뉴스」 - 보도 제언 【스포츠】 ○ 「2026 프로야구」 - 진행자 제언 【시사·교양】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방송 호평 ○ 「6시 내고향」 - 시청자 참여 제언 【라디오】 ○ 「세월따라 노래따라」 - 방송 호평	【방 송】 ○ 「6시 내고향」 - ‘보은 대추’ 연락처 문의 39건 ○ 「2TV 생생정보」 - ‘돼지불고기’ 연락처 문의 22건 ○ 「일꾼의 탄생 3」 - ‘편성 시간’ 문의 8건 ○ 「전국노래자랑」 - ‘녹화 일정’ 문의 7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7건 【기 술】 ○ 「난시청」 문의 2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1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4건 ○ 「견학」 문의 3건 ○ 「주차」 문의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82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결방 제언	○ 일일드라마 「욕망의 덧」 (5명) - 2026. 10. 27.(화) 2TV (19:50-20:30) - 드라마를 보기 위해 일찍 귀가해 기다렸는데 야구 중계로 결방되었다. 연속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 시청하지 못해 속상했다. 스포츠 중계로 인해 드라마가 결방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보 도]	
자막 제언	○ 「KBS 뉴스」 (1명) - 2026. 10. 27.(화) 1TV (19:00-19:40) - 스크롤 자막으로 송출된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개최 시기에 오류가 있었다. ‘다음 달 27일 개최’로 표기되었으나 해당 영화제는 이미 10월 27일에 시작했다. 자막을 수정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보도 제언	○ 「KBS 뉴스」 (3명) - 1TV - 김건희 씨는 현재 피고인 신분임에도 뉴스에서 여전히 ‘여사’라고 호칭한다. 이전에도 의견을 전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스포츠]	
진행자 제언	○ 「2026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KIA : 삼성 - 대구 -’(6명) - 2026. 10. 27.(화) 2TV (18:15-22:00) -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삼성의 좋은 플레이에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KIA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덜했다. KIA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편파적으로 느껴졌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공영방송에서는 어느 한 팀에 치우치지 않고 양 팀을 균형 있게 중계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시사·교양]	
방송 호평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명) - 2026. 10. 27.(화) 1TV (10:00-11:10) - 단순히 모르는 링크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알려주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방송을 놓치면 손해라는 생각에 매일 강의를 듣듯 시청했는데, 이날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자세히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의견제시자 : 익명
시청자 참여 제언	○ 「6시 내고향」 ‘추억 복원소’(1명) - 2026. 10. 27.(화) 1TV (18:05-19:00) - 해당 코너를 보며 부모님께 밥 한 끼 제대로 사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이 떠올라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사연을 신청해 보고 싶지만 80대라 인터넷 이용이 어렵고, 자녀도 멀리 있어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시청자들을 위해 전화로도 사연을 받아 주면 좋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방송 호평	○ 「세월따라 노래따라」(1명) - 한민족1 (월-일) (04:00-05:00) - 새벽 3시부터 라디오를 듣는 부산의 한 청취자이다. 오래전 우연히 「세월따라 노래따라」를 듣기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애청하고 있다. 늘 좋은 방송을 들려주는 원석현 아나운서와 제작진에게 부산의 청취자가 잘 듣고 있다고 전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